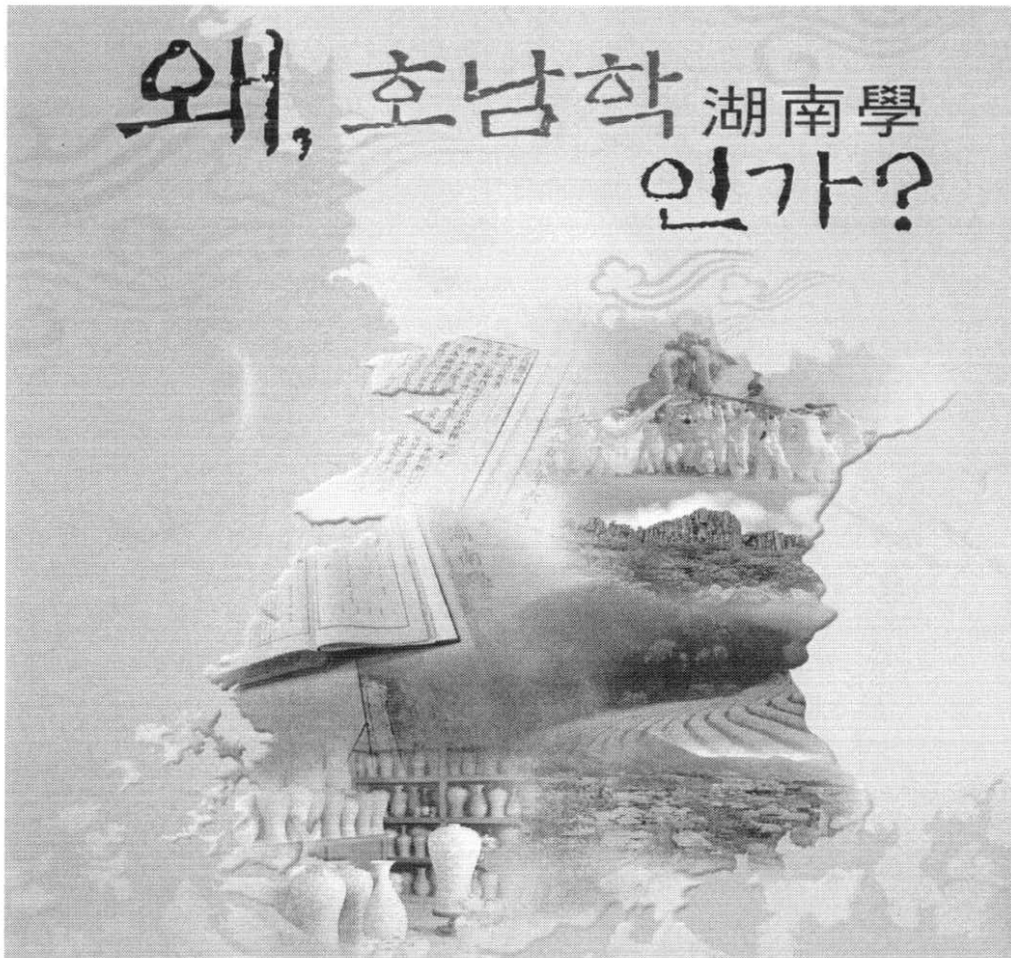


郷土史家에게 듣는 湖南學 이야기

- 호남학 강좌 : 곡성군편 -



- 일시 : 2006년 10월 31일(화), 오후 2~4시 30분
- 장소 : 곡성군민회관 소강당
- 주최 :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단 / 곡성문화원

<郷土史家에게 듣는 湖南學 이야기>
- 호남학 강좌(곡성군편) 일정표 -

■ 개회식(14:00~14:10) : 김병인(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단 전임교수)

- 인사말 송정민(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단장, 신문방송학과 교수)
- 환영사 조형래(곡성군수)
- 축 사 양병하(곡성문화원장)

■ 호남학 강좌(14:10~16:30) : 나경수(전남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 ▶ 기초 발표(14:10~14:30) 호남학연구단의 역할과 전망
 송정민(호남학연구단장)
- ▶ 제1주제 발표(15:20~15:50) 나말려초 '압록'의 위치와 의미
 이재범(경기대학교 교수)
- ▶ 제1주제 발표(14:40~15:10) 문화로 미래를 말한다-문화교육 기관; 미술관과 박물관
 김효경(전문 도슨트)
- ▶ 중간 휴식(15:50~16:00)
- ▶ 종합토론(16:00~16:30) 질의응답을 통한 자유토론

■ 폐회(16:30)

■ 만찬(17:00~18:00)

모시는 글

晩秋之節에 여러 선생님들을 모시고 <향토사가에게 듣는 호남학 이야기> 세 번째 강좌를 곡성에서 개최하게 됨을 참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단에서는 광주·전남지역 문화원과 함께 호남학에 관한 공동연구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각 지역의 郷土史家를 초청하여 호남학에 대한 다양하고 심도깊은 이야기를 듣는 강좌를 마련하였습니다. <향토사가에게 듣는 호남학 이야기> 영암군을 시작으로 3년에 걸쳐 강좌를 열어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영암을 비롯하여 진도, 곡성, 보성, 함평 등지에서 강좌를 개최할 예정이며, 내년도에도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본 강좌에서는 각 지역마다 명망있는 향토사가 2명씩을 초청하여 지역민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귀중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이는 향후 호남학 연구 풍토를 개선하고 진흥하는 데에 중요한 발판을 마련해 줄 것으로 자부합니다. 특히 각 지역에서 실시된 강좌를 한데 모아 <향토사가에게 듣는 호남학 이야기>라는 제목의 전문 연구서로 발간함으로써, 향토사와 지방사 연구에 활력을 불어넣고 열기를 높여 文郷으로서의 호남을 정립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강좌는 곡성군에서 이재범 경기대 교수의 <나말려초 '압록'의 위치와 의미>, 김효경 전문 도슨트의 <문화로 미래를 말한다-문화교육 기관; 미술관과 박물관>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이교수께서는 곡성 압록의 위치와 의미에 대해서 고견을 내어주실 것이며, 김효경 전문 도슨트께서는 문화교육기관인 미술관과 박물관의 의미있는 역할을 통한 문화의 미래적 전망에 대한 의견을 전해주시길 것입니다. 두 분 모두 곡성 출신으로서 평소 향토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활동해 오신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목사골 곡성군의 자랑스러운 전통과 우수한 역사에 대한 소중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곡성지역의 향토사 연구에 더 큰 발전이 있으시길 기원드리며, 행사준비에 힘써주신 곡성문화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단에서 추진해 나가는 호남학 연구와 지원 사업에 많은 질책과 관심을 베풀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10월 31일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단장 송정민 謹識

<목 차>

- ▣ 호남학연구단의 역할과 전망 -----1

송정민(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단장)

- ▣ 나말려초 ‘압록’의 위치와 의미-----8

이재범(경기대학교 교수)

- ▣ 문화로 미래를 말한다.-----16

-문화교육 기관; 미술관과 박물관-

김효경(전문 도슨트)

호남학연구단의 역할과 전망

송정민(호남학연구단장)

호남학연구단은 호남에 관한 역사와 문화, 철학과 사상, 문학과 예술, 민속과 음식 등을 학문적 차원에서 조명하고 체계화함으로써 호남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나아가 지역을 세계로 발돋움하게 하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호남학연구단>은 그동안 호남학에 대하여 오랫동안 수준높은 연구를 수행해 온 학내외 연구진과 연구소 및 연구단체 등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우리 지역사회의 정신사와 문화유산의 체계적 발굴·수집·조사·연구 토대를 구축하는 데에 일차적 목표를 두고 출발하였습니다.

아울러 <호남학연구단>은 지역사회 호남학 연구자들의 현안 과제인 <한국국학진흥원> 수준 이상의 지역학 연구기관 설립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지금까지의 호남학 연구를 집대성하고, 향후 호남학 연구의 질적·양적 발전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목표와 비전을 갖고 첫걸음을 내딛은 <호남학연구단>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연구방향의 설정과 지향을 위하여 학내외 많은 연구자와 연구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호남학 연구자 및 관심있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호남학연구단>은 이제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비록 가야 할 길은 멀지라도, 우리 지역을 아우르고 국가와 세계를 뛰어넘어 한국학과 호남학의 위상을 세계적 수준으로 고양시키기 위한 만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저희들의 다짐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질책을 당부드리며, <호남학연구단>의 역할과 전망에 대한 간략한 소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1. 호남학연구단 개요

1) 호남학연구단의 설립 배경

첫째, 오늘날 왜 호남학 연구의 종합적 발전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는가?

- ☞ 호남은 전통문화의 우수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한 바, 호남학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심층연구가 추진되어야 할 시점임
- ▶ 내적 요인 : 호남학 연구를 통한 인문학 발전의 새로운 토대구축 필요
- ▶ 외적 요인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의 성공을 위한 아카이브 구축전략
: 기호학·영남학과 더불어 한국학을 위한 균형적인 발전의 필요성

둘째, 오늘날 왜 전남대학교에 <호남학연구단>이 설립되어야 하는가?

- ☞ 국토균형발전과 지역균등발전의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호남의 거점 대학으로서 학문적 위상을 강화시켜야 할 필요성 대두
- ▶ 호남학이 지니고 있는 호남의 정신과 가치에 대한 학문적 계승 방안 모색
- ▶ 호남의 거점 대학→호남학의 중점 연구→새로운 담론 창출의 학문적 구현

2) 호남학연구단의 목표와 비전

첫째, 한반도를 아우르고 아시아를 뛰어넘어 세계로 향하는 호남학의 정립

- ▶ 전남대학교—대한민국—세계를 관철하는 호남학 중심의 마스터플랜 개발
- ▶ 호남학의 보편적 가치를 학문적으로 정립하여 세계적 수준의 담론 형성

둘째, 한국학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모색

- ▶ 호남학, 기호학, 영남학의 균형적 발전을 통한 한국학의 거시적 발전전략 구축
- ▶ 산간, 해양, 연안, 내륙에 걸친 호남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심층연구

3) 호남학연구단의 연구내용 및 방향

첫째, 호남학에 정통한 전문인력의 장기 지속적 양성과 지원

- ▶ 文·史·哲을 비롯한 호남학 연구에 정통한 학자의 장기·체계적 양성과 지원
- ▶ 학과 중심의 형식적 경계와 영역을 뛰어넘어 호남학의 집대성을 관철시킬 수 있는 새로운 연구 및 사업 토대 구축

둘째, 호남학 관련 고문헌자료의 수집, 발굴, 조사, 분석, 해제, 번역, 연구, 개발

- ▶ 호남의 서원, 향교, 사찰, 문중, 개인 등이 소장하고 있는 고전적, 고문서, 목판 등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발굴, 조사
- ▶ 발굴, 조사된 고전문헌 자료들에 대하여 체계적인 정리, 보존, 분석, 해제, 번역, 연구, 개발
- ▶ 호남학의 정립을 위한 기초 토대 구축 및 장기적 전망 모색.
- ▶ 호남학의 재정립을 위한 기초 자료의 수집, 충실한 해제, 표준적 번역.
- ▶ 호남학 문헌자료의 DB화, 시소러스화를 통한 효율적인 디지털 도서관 구축.

4) 호남학연구단의 역할

- ▶ 기호학·영남학과 더불어 한국학의 주요 위치를 차지하는 호남학에 대한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 ▶ 호남의 유구한 역사·문화적 전통을 다각적으로 연구하여 그 특성과 보편적인 정신문화 가치에 대한 심층적 연구.
- ▶ 호남과 관련된 모든 문헌자료의 수집, 조사, 발굴, 정리, 분석, 번역, 연구를 통한 호남학 연구의 기반 확충.
- ▶ 호남학 연구를 통해 한국학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고, 이로써 아시아적 가치의 보편성을 새로운 담론으로 창출하고, 세계적 수준의 장기 지속적인 연구시스템 구축.
- ▶ 인문학·사회과학·예술 분야의 학문적 정체성과 문화산업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상응한 새로운 학문적 토대 구축,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

2. 호남학연구단 활동 내역

1) 호남학연구단 창립기념 학술심포지움 : 왜, 호남학인가?

- 일시 : 2005년 11월 10일(목), 오후 2시
- 장소 : 전남대학교 용봉문화관 4층 시청각실
- 주제(발제자)
 - : 한국학과 호남학(임형택)
 - : 호남문화연구의 회고와 전망(최대우)
 - : 한국국학진흥원 연구 현황과 지향(전순석)
 - : 호남학 '문헌자료센터' 건립의 필요성(송일기)
 - : 호남학 관련 자료 정리와 새로운 과제(김대현)

2) 광주·전남 문화원장 초청간담회

- 일시 : 2005년 11월 10일(목), 오전 11시
- 장소 : 전남대학교 용봉문화관 4층 세미나실
- 대상 : 광주광역시 5개구 문화원장, 전라남도 22개 시군 문화원장
- 내용
 - : 호남학연구단 설립 취지 및 연구방향 소개
 - : 호남학 진흥을 위한 유기적 협조와 공동연구 방안 모색
 - : 총장과의 대화

3) 전남대학교 호남문화연구소 역대 소장 초청 간담회

- 일시 : 2005년 12월 10일(목), 오후 6시
- 장소 : 금수장호텔 아리랑하우스
- 대상 : 전남대학교 호남문화연구소 연대 소장 10명
- 내용
 - : 호남학연구단 설립 취지 및 연구지원사업에 관한 설명
 - : 향후 호남학 진흥을 위한 지속적 지원체제 구축에 관한 방안 논의

4) 호남학 관련 연구지원사업

(1) 호남학 관련 총서 저술 지원사업

번호	성명	학위(연도)/수여대학	제목
1	전성호	경제학박사(1999)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朝鮮後期 湖南地方 民間非營利組織 會計文書 研究(1668~1900) -全羅道 영암 장암리 남평문씨 用下記를 중심으로-
2	표인주	문학박사(1994) 전남대학교 국문과	호남지역 축제 연구
3	김덕진	문학박사(1996) 전남대학교 사학과	소쇄원과 그 사람들 - 소쇄원 사람들을 통해서 본 호남의 역사 -
4	위경혜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영상예술학과 박사과정(현재)	호남의 극장문화사 : 인접문화와의 협동
5	이규수	사회학박사(1994) 히도츠바시(一橋)대학	한말 일제하 일본인의 호남지역 진출 연구

(2) 호남학 관련 박사학위 논문 간행 지원사업(연중 계속지원사업))

번호	성명	학위(연도)/수여대학	제목
1	조태성	문학박사(2003) 전남대학교 국문과	草衣禪師의 시문학 연구

(3) 호남학 관련 연구단체 지원사업

번호	연구회 명칭	대표자	회원수	지원 방향
1	독해모임(문집과 사서)	안동교	11	강독활동 지원
2	5·18연구소 호남지역 민족·민주운동 연구팀	최영태	10	학술발표 및 연구로드맵 작성
3	남도민속학회	나경수	100	학술지 출간
4	목포권지역 연구회	우성대	11	지역연구저서 출간
5	전라남도향토음식연구회	정희중	12	연구회 운영
6	전주문화사랑회	이동희	14	집담회 및 학술발표회
7	전통복식문화연구회	김은정	18	복식전시회 및 학술발표회
8	호남고문서연구회 I	전형택	11	고문서 해제집 발간
9	호남고문서연구회 II	최진규	19	번역 및 목록 수집
10	호남과 근대연구회	임환모	14	세미나 및 출판지원
11	호남문화자원상품화연구회	이미숙	11	연구, 기획지원
12	동북아문물교류사연구회	임영진	29	답사 및 학술발표
13	호남한문학연구실	김대현	28	학술대회 및 논문집 발간
14	호남미술연구회	허진	14	작가연보 및 작품집 조사, 발간
15	남도자연사연구회	허민	12	교재연구 및 발간

(4) 호남학연표 제작사업

- ▣ 연구책임자 : 김동수(전남대 사학과)
- ▣ 내용 : 광주·전남지역 중심 호남사 연표 제작

(5) 가사목록집 발간사업

- ▣ 연구책임자 : 김신중(전남대 국문과)
- ▣ 내용 : 광주·전남지역 가사목록집 발간

(6) 호남학인물정보센터 구축사업

- ▣ 연구책임자 : 김대현(전남대 국문과)
- ▣ 내용 : 광주·전남·전북지역 호남학 관련 인물 DB화 사업을 위한 기초조사

3. 향후 추진 사업계획 및 전망

- 1) 테스크포스팀 구성 및 로드맵 작성
- 2) 호남학연구단 부설 서당 개설 및 한문강좌 실시
- 3) 지방문화원과의 학술적 교류사업
- 4) “호남의 인물과 사상의 현장을 찾아서” 답사 실시
- 5) <지역학연구> 국제학술대회 개최
- 6) (가칭)<한국사를 위한 호남학> 저서 발간
- 7) 2007년 <호남학회 창립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 준비
- 8) 호남학 관련 출판사업
- 9) 호남학아카데미(강좌) 실시

나말려초 ‘압록’의 위치와 의미

이 재 범

1. 서론

과거를 재구성하는데 지리적 공간의 설정은 결정적 요인의 하나이다. 특히 고대사에서 위치비정은 절대적이다. 본고에서는 고대의 곡성군의 지리적 중요성을 논하기 위하여 곡성군의 ‘압록’에 관하여 살펴보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본고에서 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왕창근의 고경문에 나오는 지명 ‘압록’의 위치비정은 그동안 별 의문없이 압록강을 지칭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왔다. 나말려초에 압록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많지 않다. 대표적인 것이 왕창근 고경문에 나오는 것이다. ‘先操鷄後搏鴨’이 그것인데 여기서의 ‘압’이 압록강을 지칭한다는 것이 통설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 생각은 자연스럽게 왕건의 북진정책과 연관되어 이해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에 있어서 압록강이 과연 북방영토로까지 확대되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또한 왕창근고경문에 나오는 압록이 당시의 시대상으로 보아 부적절한 표현 내지는 해석이라고 생각하여 왔다.¹⁾

본고는 압록이라는 용어의 사용례를 살펴보고 압록이 압록강만을 의미하는 고유명사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용어가 지역이나 시기에 따라 고유화되어 갔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다음에 나말려초의 왕창근 고경문에 나오는 ‘압록’의 위치를 확인하여 이때의 ‘압록’이 지금의 압록강이 아닌 곡성의 압록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자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왕창근 고경문의 ‘선조계후박압’에서 압록이 상징하는 지역이 어디였던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더 나아가 왜 계림에 상대어를 압록으로 하였는지 그 의미를 찾아보려고 했다.

나말려초의 지명 ‘압록’의 위치비정은 후삼국시대의 판도를 확인하고 후삼국간의 세력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동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2. ‘압록’의 용례

지명이 이동한다는 사실, 또 다른 지역에서 동일한 지명이 독립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은 압록에 대해서도 예외는 아니다. 먼저 삼국사기에 나타나는 압록의 용례를 살펴보면 압록은 압록강을 지칭하는 것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러나 압록은 반드시 압록강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지역적으로 근접하긴 하지만, 고구려

1) 김두진 교수는 제2회 태봉학술제에서 개인적 견해로 곡성의 압록일 수 있다는 토론 답변을 시사한 바 있다.

때의 압록은 ‘압록원’처럼 지역을 칭한 경우도 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은 고구려가 멸망한 이후에는 압록이라는 지명이 『삼국사기』에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만큼 고구려 때의 압록은 고구려의 멸망 이후에는 멀어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따라서 압록을 압록강과 도식적으로 치환하려고 하는 태도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라고 여겨진다. 그런데 갑자기 궁예전에서 압록이 나오는 것은 고구려의 압록과는 다소 생소한 느낌을 준다.

다음은 고려 묘지명에 나오는 용례를 살펴보면, 시기적으로는 후기에 압록강을 지칭하는 용어가 압록강, 압강, 압수 등으로 나온다. 이는 모두 지금의 중국과의 경계를 가르는 압록강을 의미한다. 분명한 것은 후기에 등장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 한자를 쓰건 두자를 쓰건 강 또는 수를 붙여 반드시 하천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다음은 『동국여지승람』에 나타난 압록의 용례를 살펴보면, 압록강과 압록은 구분되어 사용된다. 그 구체적인 실례는 진의 명칭이 북방의 것은 ‘압록강진’인데 비하여 곡성 지역의 것은 ‘압록진’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착오라고 볼 수만은 없다. 압록강은 지금의 한중 경계가 되는 지역을 의미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압록은 지금의 곡성과 구례 사이의 지역인 압록을 의미하고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압록과 압록강이 확연히 구분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압록과 압록강이 혼용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러한 구분은 언제부터 확립되어 있었던 것일까? 그 이전으로 소급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자.

『신증동국여지승람』 곡성현조에 압록진과 압록원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이미 1530년(중종 25) 이전에 곡성에 압록이 있었다는 증거이다. 그런데 곡성을 대표하는 강이 압록강이 아니라 순자강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세종실록지리지』에 압록진 등 다른 진은 전혀 보이지 않으나 순자진은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호남읍지』 건치연혁을 보면, 도선의 기록이라고 하면서 순자강의 중요성을 이야기 하고 있다.

여기서의 곡성 압록은 강이 아니라 지역이다. 진이 있고 원이 있었다. 이처럼 압록은 강을 의미하기도 하고, 지역을 의미하기도 하는 일반명사가 고유명화 했던 사례 가운데 하나이다. 압록은 강으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진과 같은 지역의 의미도 있었다. 따라서 고경문의 압록=압록강이라는 해석은 이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압록강과 고려와의 관계에 살펴보도록 하자. 최승로의 시무 28조 중 1조의 내용을 살펴보자.

우리 국가가 삼국을 통일한지 47년이 되었는데 사졸이 편안히 잠자지 못하고 군량이 많이 허비됨을 면치 못한 것은 서북지방이 오랑캐에게 인접되어 방수

하는 곳이 많은 때문입니다. 원컨대, 성상께서는 이것을 염두에 두소서. 마혈탄으로써 경계를 삼은 것은 태조의 뜻이옵고, 압록강가의 석성으로써 경계를 삼은 것은 대조(성종)의 정한 바입니다. 바라옵건대, 요해지를 가려 국경을 정하고 토인의 활쏘기와 말타기 잘하는 사람을 뽑아서 그 방수에 충당하고, 또 그 가운데 2~3명의 편장을 뽑아서 그 방수에 이를 통솔하게 한다면 경군은 번갈아 수자리하는 노고를 면하게 되고 마초와 군량은 운반하는 비용을 덜게 될 것입니다.(고려사절요 권2 성종 원년 6월조)

위의 내용으로 보면 태조 때의 북쪽 국경은 마혈탄에서 그치고 있다. 마혈탄에 대해서는 청천강이라는 설이 지배적이다.²⁾ 고려가 압록강가의 석성³⁾으로써 북방과의 경계를 삼은 시기는 대조, 즉 성종때이다.⁴⁾

최승로의 지적대로라고 하면 고려 태조때 압록강을 장악하려고 했다는 생각은 크게 역사적 사실과 어긋나게 된다. 태조대의 축성관계 기록을 보더라도 압록강에는 미치지 않고 있다.

그런데 같은 최승로의 상서문 가운데 오조치적평 가운데 일부는 태조대 압록강가에 이르렀을 것이라는 추정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있다.

엎드려 살피건대 우리 태조 신성대왕이 즉위하시매, 때는 난세에 당하고 운은 천년 만에 돌아오는 시기에 해당했습니다. 처음 난을 평정하고 흉적을 물리침에 있어서는 하늘이 전주를 낳아 (그) 손을 빌리었고, 뒤에 도록을 받고 천명을 받음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성덕을 알고 (태조에게) 마음을 돌렸습니다. 이에 신라가 스스로 멸망할 때를 만났고, 고구려가 다시 일어날 운을 타서, 향리를 떠나지 않고 곧 고구려를 일으켜 요수와 패수의 놀란 물결을 진정시켰으며, 진한의 옛 땅을 얻어, (즉위한지) 19년에 천하를 통일하였으니, 가히 공은 이보다 더 높음이 없으며 덕은 이보다 더 큼이 없다고 하겠습니까.⁵⁾

위의 내용에서 태조는 요수와 패수의 놀란 물결을 안정시켰다고 하였다. 여기서 요수는 요하를 말하는 것이며 거란을, 패수는 대동강 또는 예성강을 의미하는 것 같다. 그런데 태조가 요하와 패수를 평정하였다고 하면 압록강 이북까지 진출하였다고 확대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런데 여기서 ‘定’이라는 의미는 복속관계라기 보다는 외교관계를 통하여 안정시켰다고 보는 것이 무리가 없을 것 같다. 실제로 태조는 처음 천수라는 자주적인 연호를 사용하여 마찰을 없앴다. 그리고 거란과도

2) 이기백 등, 『최승로 상서문연구』, 일조각, 1993. 79쪽

3) 의주 방면으로 추정하고 있다.(이기백 등, 최승로상서문연구, 일조각, 1993. 79쪽)

4) 대조를 경종, 중국으로 보기도 한다.(이기백 등, 최승로상서문연구, 일조각, 1993. 79-80쪽)

5) 이기백 등, 『최승로 상서문연구』, 일조각, 1993. 7쪽.

처음 그다지 반목하는 사이가 아니었다.

3. 왕창근 고경문의 해석

왕창근 고경문⁶⁾에 나오는 압록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그 부분을 전재하면 다음과 같다.

先操雞後搏鴨者王侍中御國之後先得雞林後收鴨綠之意也⁷⁾

위의 사료⁸⁾에 관한 기존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먼저 닭을 잡고 뒤에 오리를 칠 것' 이라는 것은 왕시중이 임금이 된 후에 먼저 계림을 점령하고 다음에 압록을 거둔다는 뜻이다

대체로 여기서의 계림은 신라이며, 압록은 압록강을 의미한다고 한다. 어떤 곳에서는 아예 압록을 압록강안이라고까지 해석한 곳도 있다.

그러나 위의 내용을 계림을 신라, 압록을 압록강으로 비정하면 문장의 비유가 부적절해 보인다. 먼저 계림은 신라라고 했을 때, 계림은 지역이며 국가의 비유이다. 그런데 압록을 압록강으로 해석하면 지역에 대한 비유도 아니고 국가의 상징도 아니다. 일정한 경계선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압록을 압록강으로 상징하는 데는 무리가 따른다. 더구나 이를 근거로 왕건의 고구려주의의 선포와 북진정책에까지 연결짓는 것은 무리라고 여겨진다.

실제 이 시기에 왕건의 관심은 압록강에까지 미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리고 압록강을 고구려의 상징으로 여겼던 것도 아니다. 이 시기의 고구려의 상징이라면 오히려 평양이 아니었을까? 궁예가 고구려의 원수를 갚는다고 하면서 평양을 말하였다.⁹⁾ 그리고 견훤도 왕건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대동강(?)운운하면서 고려를 의미하고 있다.¹⁰⁾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의 압록을 압록강으로 비정하고 고구려의 비유로 해석하는 것은 큰 무리가 따른다.

왕창근 고경문에서의 압록의 위치를 압록강으로 비정하는 것은 위의 문장의 구성상으로도 그렇고 당시의 정세를 참작하더라도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 앞서도 지적했듯이 문장 구성상으로 보면 여기서의 압록은 계림=신라와 같이 어떤 일정

6) 왕창근의 고경문은 후대의 조작설 등 당대의 문건으로 선뜻 인정하기에 무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7) 『고려사』, 권 1, 세가 1, 태조 1.

8) 삼국사기 궁예전에도 동양의 기록이 있다.

9) 삼국사기 궁예전

10) 삼국사기 견훤전.

한 국가나 세력에 대한 비유여야 할 것이다. 이 무렵에 신라에 견줄 수 있는 집단은 후백제 밖에 없다. 발해 유민이 구려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시기는 930년대 이후부터 유민이 발생하면서부터인 것 같다. 그렇다면 이 시기에 있어서 왕건에게 신라와 비슷한 비중으로 여겨질 집단은 후백제 외에는 달리 찾을 방법이 없다. 압록은 후백제를 상징하는 표현으로 보아야 문장 구성상으로 맺구가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제현의 지적이 참고가 될 것 같다.

A-1. 우리 태조(왕건)가 왕자리에 오른후 김부가 아직 항복하지 않고, 견훤이 사로잡히지 않았는데, 여러번 서도(서경)를 행차하고 직접 북방 변두리를 순찰하였으니, 그 뜻은 역시 동명(고구려)의 옛 강토를 우리나라의 귀중한 유산으로 확신하고 반드시 이것을 모두 차지하려는 것이었다.

A-2. 그러니 어찌 그의 뜻이 ‘닭’을 잡고 ‘오리’를 치는데 그쳤다고 하겠는가. 그런 것이 아니었다. 참으로 우리 태조의 도량과 계략은 크고 원대한 것이었다.(《고려사》 권2 세가 태조 26년 이제현찬.)

위의 내용은 이제현이 왕건의 고구려 계승의식에 대하여 평한 내용이다. A-1은 왕건이 후삼국 통일 이전부터 고구려 고토 회복을 위하여 서경 행차를 자주하였다는 내용이다. A-2는 왕건의 도량과 계략은 ‘닭’과 ‘오리’를 잡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원대한 고구려의 강토를 차지하려고 하는데 있다는 것이다. 문맥상 여기서의 ‘닭’과 ‘오리’는 A-1에서의 김부와 견훤의 비유이며, 신라와 후백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이제현은 고구려는 동명, 신라는 닭, 후백제는 오리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왕창근 고경문의 압록은 문장구성상으로 볼 때 후백제에 대한 비유로 보아야 크게 무리가 따르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당시 후삼국의 정세상으로 볼 때도 압록을 압록강으로 비정하는 것은 크게 비약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왕창근 고경문이 나타날 때가 왕건이 쿠데타를 일으킬 무렵으로 본다면 이때 태봉의 적대관계는 신라와 후백제였다. 특히 후백제는 왕건이 한반도의 서남해안에서 해상전투를 통하여 적개심이 커져 있던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상대를 의식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 따라서 왕창근의 고경문 가운데 이러한 일련의 상황이 반영되어 있어야 했을 것이다. 왕건에게 있어서 북진정책도 중요했겠지만, 그 보다는 현실적으로 처한 난관 돌파가 우선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압록의 위치는 현실적인 문제와 연결시켜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당시 왕건에게 있어서 최대의 난제는 후백제 문제였던 것이다.

한편 당시의 왕건의 통일전략과도 연결지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왕건의 통일 전략은 기본적으로 삼한통일이었다. 왕건은 그 자신은 물론 그의 아버지 왕륜

에 있어서도 북진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궁예는 조선, 숙신, 변한의 왕이 되고자 하였고, 왕건의 가계는 모두 삼한과 연관이 있다. 궁예와 왕건의 지역성을 비교하자면, 궁예가 왕건보다 더 북진적 성격이 강하다. 궁예가 처음 의도했던 바는 조선과 숙신지역을 포함하는 통일이었다. 이에 비하면 왕건가의 생각은 일찍부터 삼한통합에 있었다. 북방에 대한 진출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북진을 당시의 최우선의 과제로 여겼던 것은 아니다.¹¹⁾ 삼한통합에 어느 정도 만족하였던 것 같다.

아마도 이러한 분위기는 그 이후에도 계속되었던 것 같다. 거란의 1차 침입 때 거란의 요구를 성종을 비롯한 고려 조정에서 수용한 것을 보더라도 그러하다. 서희가 강경론을 주장하기 이전 자비령 이복을 떼어주자는 할지론이 대두되어 국론으로 되었던 것을 보면 그러하다. 고구려 고토회복 차원의 북진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려는 면이 더욱 강했던 것으로 여겨지기까지 한다.¹²⁾

이와 같이 왕건의 관심이라는 측면에서 보아도 압록강을 우선적인 진출 지역으로 여겼던 것 같지는 않다. 여기서의 압록은 압록강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찾아야 할 것이며, 그 지역은 곡성군의 압록으로 비정하는 것이 크게 무리가 따르지 않을 것 같다.

4. 압록의 지리적 조건과 후백제

그렇다면 왜 압록이 후백제의 비유로 일컬어졌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계림을 신라의 비유로 인정하는 데는 그다지 이의가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왜 압록이 후백제를 상징하는 지역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데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을 것이다.

먼저 압록의 지리적 조건을 살펴보도록 하자. 압록은 현재는 전라남도 곡성군의 한 조그만 강촌이다. 섬진강과 보성강이 갈라지는 곳에 위치한 섬진강상의 교통요지이다. 부근에는 태안사가 있다. 수운이 활발하였던 곳이다.

이 무렵 후백제의 해상으로의 출구는 섬진강구 이외에 이렇다하게 없었던 것 같다. 서해안으로 들어가는 하천들이 있지만, 태봉 후기가 되면 거의 왕건이 이끄는 태봉의 수군들에 의하여 활동이 제약되었을 것이다.

덕진포전투 이후 서남해안이 태봉에 의해 장악이 되었던 것 같다. 따라서 금강, 동진강 등을 통하여 해상활동을 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여겨진다. 공주장군 홍기가 태봉에 귀부한 이후부터는 금강을 이용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이미 고이도,

11) 왕건의 북진정책과 관련하여 서경 중시하였다는 사실이 지적된다. 그러나 서경도 북진정책의 일환이라기 보다는 국내 정치의 안정이라는 측면이 강하다고 생각된다. 서경은 후백제와의 쟁패과정에서 안정을 유지해야만 하는 배후지역이었다.

12) 당시의 분위기나 중국에서의 한반도 인식도 자비령을 경계로 달랐던 것 같다. 중국에서는 자비령 이복을 까오리, 이남을 솔롱곳이라고 하여 달리 취급하였다고 한다.(김호동, 동방건문록의 주.)

영광 등을 태봉에서 장악하였다면 후백제의 서남해안으로의 해상활동은 크게 위축되었을 것이다. 더욱이 후백제가 밀접하게 외교관계를 가졌던 중국의 세력이 오월이었다면 항해를 하기 위한 수로가 절대 필요했을 것이다. 실제 오월로 보내는 후백제의 사신이 왕건에게 나포된 적도 있었다.

대체로 나주일대를 장악하고 덕진포해전에서 후백제가 패전한 이후로는 서해안의 해상력이 궁예정권에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후백제의 해로는 섬진강으로의 진출만을 남겨 두고 있다. 필요한 하천은 섬진강 밖에 없었던 것 같다. 그리고 그러한 진출이 후백제의 잦은 강주(진주) 진출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하천은 섬진강뿐이었던 것 같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수운상의 유지가 섬진강과 보성강의 합류지역인 압록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일정한 시기, 이 압록은 후백제를 의미하는 지역으로 비유되어 불렸던 지명이 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이 시기에도 압록에 대한 지리적 상식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압록에서 가까운 거리에 태안사가 있으며, 압록은 태안사로 가는 수로상의 관문 역할을 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당시 태안사는 후삼국 쟁패기간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태안사의 위치는 신라와 태봉, 후백제의 세력이 중첩되는 지역이었던 것 같다.

이 무렵 효공왕은 광자대사에게 도움을 청한다. 효공왕의 재위는 897-912년이므로 이 시기에는 태봉의 세력이 호남의 남해지역에까지 이르는 시기이다. 이 무렵에 태안사가 있는 곡성은 전반적으로 잘 알려진 지역이었다. 이곳은 지리적으로는 후백제영역에 속하지만, 실질적인 영향력은 태봉의 관할이었다. 그리고 신라로서도 이 지역을 정치·군사적으로 중요시 하였던 곳으로서, 효공왕이 광자대사에게 신라를 도와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되었다.

광자대사의 명성은 널리 알려져 있었고, 태안사의 사세가 컸다. 따라서 곡성 일대의 사정이 신라나 인근지역에도 널리 알려져 있었음을 의미한다. 당연히 압록에 대해서도 알려져 있었을 것이다.

이때 광자대사는 신라에 협조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하여 태봉을 따랐던 것 같지도 않다. 태봉의 영향력이 이 지역까지 미쳤던 것은 분명하지만, 광자대사와 태안사는 반독립적이었거나 후백제를 추종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그 이후로 광자대사가 왕건을 추종하게 된다.

그렇다면 그 이전까지 대사와 태안사는 한동안 반독립적이었거나 지역적으로 가까운 후백제와 밀접한 관련을 가졌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함께 이 일대의 수운의 중심지였던 압록 일대는 한동안 후백제의 중요 근거지로 이용되었을 것으로 여겨지며, 이러한 연유에서 압록이 후백제를 비유하는 지역으로 인식되었던 시기도 있었

을 것이다.

5. 결론

신라와 고려의 왕조 사이에 위치한 단순한 과도적 시기가 아니라 새로운 사회를 구축하고자 하는 고민을 하였던 시기로 이해되고 있다. 정치사적으로는 지배집단의 속성이 혈연과 신분을 세습하고자 했던 골품제의 지양으로 나타난 시대가 되었다. 사회적으로도 피지배집단이 일선에 나오게 되어 활발한 자기 정체성 확립의 시기로 파악되기도 한다. 문화적으로는 정치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 다양한 지방문화가 창출되었다는 측면으로 의견이 모아지기도 한다.

이 시기 즉 나말려초에 등장하는 지명 ‘압록’은 북방의 압록강과 전라남도 곡성군의 압록이 대표적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후삼국이 쟁패하는 시기에 있어서 관심의 대상은 곡성의 압록이었다. 곡성의 압록은 섬진강이 보성강과의 합류점에 있는 수운상으로 중요한 지역이다. 더욱이 주변에는 선종의 산문 가운데 하나인 대가람 대안사가 위치하고 있다. 당시의 대사찰은 하나의 도시를 형성하였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번성하였다. 곡성의 압록은 이 시기에 이러한 섬진강의 수운을 이용하는 중요한 자리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후삼국의 쟁패지역의 하나가 되었다.

특히 903년 이후에는 궁예의 수군이 전라남도의 서남해안 일대로 진출하여 장악하게 되자 후백제의 해외 연결 장소로서 섬진강의 중요도는 증대되었다. 따라서 왕창근의 고경문에서처럼 후백제를 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후백제는 이 일대로 진출하려고 노력하였고, 왕건의 고려는 이를 저지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나말려초의 쟁패지역으로서의 ‘압록’은 통설과 같이 북한의 압록강이 아니라 지금의 전라남도 곡성군 압록이었음을 밝혀 보았다. 왕창근 고경문의 문장구성상의 비유로 보거나, 당시의 상황을 미루어 볼 때 한중 국경인 압록강으로 비정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여겨진다. 왕창근 고경문에 나오는 압록은 지금의 전라남도 곡성군의 압록으로 비정하여야 할 것이다.

저자약력 : 1951년 곡성 출생

성균관대 사학과, 동대학원.

<후삼국시대 궁예정권의연구>로 박사학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부편수원, 국방군사연구소 민족군사부장.

러시아극동대학교 교환교수, 현 경기대 교수.

저서: 슬픈 궁예, 고려태조즉위시의사회적 동향에 대한 고찰 등.

문화로 미래를 말한다. -문화교육 기관; 미술관과 박물관-

김효경

· 들어가는 말

냉전의 종식 이후 양분된 이데올로기 속에서 산업화를 통한 경제성장에 경도되었던 어제와는 달리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문화라는 단어가 너무나 일상적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프랑스의 미래학자 기 소르망은 '21세기는 문화 예술의 시대'라고 했으며, 시인 김지하는 '문명과 국력의 중심이 경제력에서 문화력으로 이동'한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문화란 무엇인가? 문화는 인류가 발생했던 시점부터 오늘날까지 우리가 생활을 위한 또는 이상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일궈 놓은 모든 산물들이 이에 포함된다. 또 이러한 문화는 인류에게만 존재하고 학습을 통해 소속집단으로부터 습득하고 전달하게 된다. 이렇게 인류가 만든 문화의 총체들이 한 자리에 모인 곳이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과 같은 공간들이다.

우리나라의 근대화의 역사와 함께 시작된 박물관은 100여년의 시간 속에서 많은 변모를 보였다. 규모의 확대 및 시설의 증가뿐 아니라 그것의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도 달라졌고, 종사인력의 전문성이 높아짐에 따라 연구성과 또한 높아졌다. 그러나 이런 양적 질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대중에게는 아직도 정서적으로 멀리 떨어진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문화적 공간을 대표하는 박물관/미술관이 대중에게 환영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요구와 시설의 증가를 불러일으키는 이유는 무엇일까?

· 문화시대 속의 우리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이런 문화를 통한 다양한 장르의 예술들이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활발하게 소개되고 있다. 국가적 지향점도 경제대국에서 이젠 문화강국으로 돌아섰으며 문화산업의 부가가치를 통한 국가의 경제력 획득은 현 시대의 흐름이다. 세계를 지구촌이라 하여 물리적 거리를 과학기술의 발달을 통한 교통의 혁신으로 이동시간을 축소시켰고, 더 나아가 발 빠른 문화적 교류는 글로벌리즘에서 글로컬리즘으로까지 전환되면서 이제 지구촌 어느 곳도 낮설

지 않는 시대가 된 것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의 경제성장의 일변도를 걷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경제적 선진국인 서구를 모델로 삼아 그와 같은 발전을 쫓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러다 보니 경제적 성장의 방식뿐 아니라 그들의 문화 역시 자연스레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그 결과 자국의 전통적인 문화보다는 맹목적으로 서구문화를 선호하는 것이 일반화 되었다. 그 결과 우리들은 같은 아시아권의 언어보다도 오히려 영어에 익숙하게 되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서구의 동양에 대한 관심이 점차 고조되면서 동양문화의 가치와 인정은 우리 안에서부터라기보다 밖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봐도 잘못된 것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서구의 잣대에 맞춰진 동양이란 개념과 그들의 시각으로 조율된 아시아의 이미지는 실재와 다른 점들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 서구사회가 우리 아시아 사회의 문화를 관심 있게 바라보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 되겠지만 올바르게 인식하고 바로 이해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바로 알아서 제대로 된 문화를 교류함으로써 서로를 바로 알고 이해하여 국가의 정치, 경제적 교류에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

또 이제 우리나라도 단일민족이란 다소 배타적 개념으로부터 벗어나야 할 시점에 다다랐다. 민족의 자존감을 더 높이는 겨레 또는 한민족의 개념은 패권주의 시대엔 그 가치가 빛났을지 모르나 오늘 우리사회는 타자에 대한 새로운 개념의 정립이 필요하고 그런 타자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과 국제결혼을 통한 우리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들이 갈수록 우리 사회에 들어가는 추세이다. 이제 우리사회는 혼성문화의 시대가 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 것에 대한 바른 지식과 또 더불어 그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이제 글로벌 시대 속에서 다른 문화권의 이웃을 우리라는 울타리 안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서구 사회가 제3세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던 것 역시 그들의 울타리 안으로 타문화권 인구의 유입이 가속화됨에 따라 불거진 사회적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서 시작된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시대적 흐름과 문화적 풍토의 변화는 문화를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만들었다.

• 우리사회의 문화 현실

이제 우리정부도 이런 사회적 변화를 인식하고 이를 받아들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실천들을 하고 있다. 하지만 문화의 세기를 살고 있는 대중들에게 아직 문화에 대한 공공성을 획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관주도형의 문화정책들이 우리사회의 문화적 정체성확립을 위한 노력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자율적이며 자생적, 지역적인 문화를 관주도를 통해 만들어낸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이런 아이러니를 안고 있을지라도 그 흐름을 거스를 수 없기에 정부는 문화적 토양을 확대하기 위한 문화의 매개적 역할을 하는 문화기관과 교육기관으로서의 국공립미술관/박물관과 사립미술관/박물관들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필요성과 중요도를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문화관광부는 2011년까지 박물관 및 미술관을 500개로 늘리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그린벨트에 미술관 건축을 허가하거나 세제감면 혜택을 주는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이 증가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변화의 요인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사람들의 정서가 메말라가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문화예술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또한 문화예술의 부가가치가 높아서 경제적 경쟁력으로써까지 이어지는 현실과악과 주5일근무제 실시, 고령화시대에 따른 문화소비활동의 증가 등을 꼽을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미술관/박물관의 변화는 세계2차대전과 경제공황 이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전후의 피폐해진 사회를 재건하는 것에 있어 우선은 국민들의 정신적 치유가 급선무였다. 그래서 미술관에서는 퇴역군인들에게 무료 미술강좌를 통해 미술을 통한 신체적 정신적 휴식과 치유를 제공하였다. 이때부터 미술관은 신성한 공간이 아닌 역동적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정보를 교환하며 의미 있는 학습을 하는 장소로 변모하였다. 더 이상 미술관/박물관은 박제화된 역사, 문화예술을 일방적으로 전달 받는 곳이 아닌 쌍방향의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사회교육의 장인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인식의 변화와 국가 정책에도 불구하고 과거보다는 나아졌지만 아직까지 일반대중들에게 미술관/박물관은 어렵고 생소한 공간이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관람객 참여를 통한 전시방식과 전시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시스템들이 도입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장치들은 전시문화의 진일보시키는데 일조하였지만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이 여전히 필요한 현실이다.

주로 대도시를 거점으로 두고 있는 미술관이 곡성군내에도 한 곳이 있다. 다름 아닌 옥과 도립미술관이 바로 그곳이다. 타 지역(전북도립, 경남도립)의 도립미술관에 비해 그 규모와 예산을 비교할 바는 못 되지만 그래도 큰 의미를 지닌 곳이다. 아산 조방원화백이 스스로 수집한 소장품 6800여점과 미술관과 전체 부지를 1988년에 전라남도에게 기증하였기 때문이다. 서구사회에서는 기증문화가 보편화 되어있지만 아직 우리사회에서 이런 풍토가 미비하다. 하지만 최근 국립중앙박물관에 자신의 평생을 통해 수집한 귀중한 소장품들과 자산을 기증한 사례들이 빈번하다. 이런 소중한 자신들의 자산을 공적 기관으로 환원하는 일들은 소장품인 미술품들이 갖는 유기적 생명력을 공적으로 확대하여 여러 사람들과 나누고자 함이다. 이런 소중한 기증을 통해 태어난 옥과도립미술관은 문화적 공간이 부족한

이 지역으로서는 대단히 환영할 만한 곳이다. 하지만 위치적으로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하고 옥과도립미술관의 소장품의 성격에 맞는 연구원이 부재하고 또 전문화된 인력을 배치하여 현실에 맞는 미술관 운영시스템이 아직 갖춰지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옥과도립미술관의 전시구조는 1층은 기획전시실로 광주 전남 작가들을 중심으로 기획전을 개최하고, 2층은 조방원화백이 기증한 소장품들이 전시장에서 관람객을 기다리고 있다. 즉, 옥과도립미술관은 당대 미술의 흐름을 보여주는 전시와 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 전통적 요소가 함께 공존하는 재미있는 학습공간인 것이다. 게다가 위치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지만 자연 속에 위치한 환경적 특성을 살려 2회째 광주지역 갤러리들과 연계하여 환경미술제를 개최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환경보호와 보존의 소중함을 미술로써 대중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교육적 전시를 소개하고 있다.

곡성지역은 광주에서 불과 3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적 연대가 가능하고 또한 광주가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로 거듭나게 될 때 우리 곡성도 그 영향권 안에 놓일 수 있는 충분한 지정학적 위치를 갖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했을 때 우리 지역에도 새로운 전시시설이나 문화공간을 건립하는 것 보다 우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문화공간인 옥과도립미술관과 곡성군민회관과 같은 문화시설들에 충분한 재원과 전문인력을 유치시켜 활발한 활동으로 지역민들에게 문화적 경험의 기회를 확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문화적 경험이 확산될 때 잠재되어 있는 지역적 문화는 되살아난다. 따라서 문화를 통한 지역 공동체 의식도 강화할 수 있으며, 특색 있는 지역문화산업을 개발하여 지역경제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

이런 문화산업의 부가가치는 지자체 이후 급속도로 증가하는 지방 문화축제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천편일률적인 축제들은 행사시기와 내용에 있어 차별화를 두지 못하기에 고정 관람객 유치와 지역 문화의 정체성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역성과 지역적 문화에 대한 깊은 성찰이 바탕이 된다면 지역 문화축제들은 활발한 문화활동을 통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상품을 만들어 낼 것이고, 이로 인해 지역의 고용유발효과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적 차별성 획득을 통해 경쟁 우위에 서게 될 것이다.

문화예술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논의하고 치유하는 것은 인간이 자연에 가까울 때 가장 건강한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과 사고를 통해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비판하면서 자생적으로 치유하는 것은 오늘과 같은 다양한 문화의 혼재와 자기중심적인 이기적 사회 속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요소가 아닐 수 없다. 이런 문화적 향수를 통한 인간의 자발적 사고와 비판, 자생적 치유와 사회적 문제 해결의 단계로 성장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문화 생산자뿐 아니라 문화를 향수하는 일반대중들의 관심이 가장 중요하고, 이런 관심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현실의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이다. 학력위주 사회인 우리나라에서 입시위주의 교육은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 우리 교육계는 인식을 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지만 여전히 악순환의 고리를 벗어나기는 힘든 현실이다. 문화저변확대의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어릴 적부터 문화에 대한 접촉과 경험이 자신의 올바른 정체성 확립과 그것을 통한 타자에 대한 배려와 이해를 통해 사회를 바라보는 자신만의 시각과 비판의 목소리를 가지게 된다면 여러 면에서 선진화되고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는 포용력을 지닌 사회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 나오는 말

한국관광문화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1세기 박물관/미술관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유물에서 체험으로, 보존중심에서 교육중심으로, 계몽에서 학습과 놀이를 병행하는 에듀테인먼트로, 공급자중심에서 이용자중심으로, 국가중심에서 지역중심으로 표준화에서 특성화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결합으로, 관료주의에서 경영합리화로, 학예원 중심에서 전문인력중심으로, 기억의 축적에서 미래의 창조로 전환을 이룰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박물관/미술관을 통해서 미래를 내다보고 제시하는 것일 것이다. 우리는 텍스트화된 역사를 통해서 단순 과거에 대한 사실과 실재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통해 오늘의 문제를 파악하고 미래를 내다봄으로써 보다 발전적인 내일을 꿈꿀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정보의 홍수시대, 혼성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 박물관/미술관을 통해 얻은 문화적 성찰력으로 국제화되어가는 우리사회를 이해하고 타자를 따뜻하게 포용할 수 있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런 문화저변의 확대는 건강한 문화를 낳게 되고 따라서 이런 건강한 문화는 인간다운 정상적 사회는 물론 국가적 경쟁력을 획득하여 문화선진국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이 된다.

문화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지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룰 수 없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 스스로가 거시적 안목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공동체의식을 강화하여 지역적 문화를 사회저변에 확대하여

오늘의 관주도형 문화정책의 아이러니를 극복하고 보다 살기 좋은 사회로 회복하는데 우리 모두가 주체적으로 앞장 서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형숙, 2001, 『미술, 전시, 미술관』, 예경
- _____, 2001, 『미술관과 소통』, 예경
- 김지호, 2005, 「큐레이터쉽과 관련한 권력」, 제3회 한국미술이론학회
- 문화아시아, 2004, Vol.1

